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남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by full-time housewives with infants and preschool children:
Comparison with working wives and full-time housewives' husbands

서정대학교 아동청소년보육과
조교수 기은광**

Dept. of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Seojeong College
Assistant Professor Ki, Eun Kw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통계청의 주택인구총조사에 나타난 전업
주부들의 사회활동 참여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by full-time housewives with infants and preschool children. The data in this study comes from a 1 percent free sample of the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The statistical methods for this study were percentage,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ccording to number of infants,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and number of elementary schoolchildren. Second, there was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between full-time housewives and full-time wives' husbands. Third, factors like full-time housewives' age, educational level,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children, number of rooms, and occupancy status affecte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by full-time housewives. These results show that full-time housewives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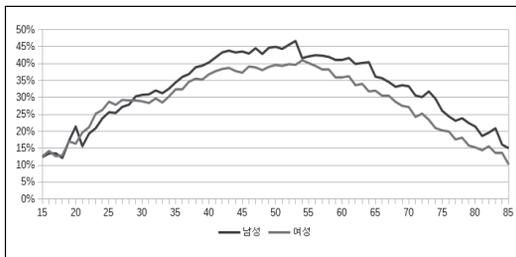
** 주저자, 교신저자: 기은광(eunkwang@seojeong.ac.kr)

were under pressure in relation to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because of their caregiving labor but participated in religious and educational activities actively.

Key Words : 전업주부(full-time housewife), 취업주부(working wife), 전업주부 남편(full-time housewives' husbands), 사회활동 참여(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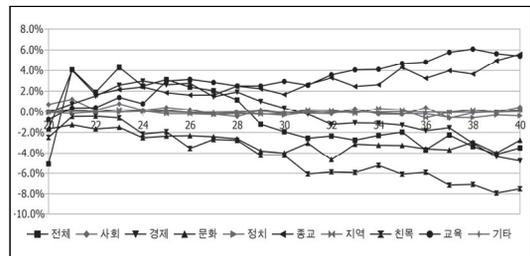
I. 서론

통계청(2015)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무료 1% 표본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람들의 15세 이상 남녀의 사회활동 참여는 <그림 1>에서 보듯 만29세를 기준으로 남성의 사회활동 참가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이나 종교 단체 사회활동의 참여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친목, 문화 단체 사회활동이 높다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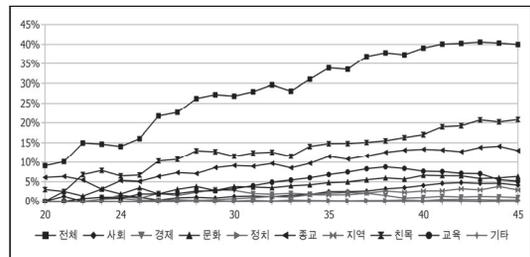
<그림 1> 남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율 (단위 : %)

이 있다(<그림 2> 참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25세에서 33세까지 참여율의 변화가 별로 없어서 마치 ‘터널’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터널 모양의 특이한 형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나는 M자 만곡이나 흥미로운 현상이다. 과연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 사회활동 참여에서의 ‘터널’이 나타나는 연령은 여성의 사회진입 및 출산, 양육이 활발한 시기이다. 2010년의 여성의 초혼연령은 28.9세로 25세에서 33세의 중간 정도에 해당



<그림 2> 남성 대비 여성의 분야별 사회활동 참가율 차이 (단위 : %)

하며(통계청, 2012) 30~34세는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이 52.9%로 25세에서 54세 사이에서 가장 낮은 구간이기도 하다(통계청, 2016). 30대 중후반을 기준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연령대에서는 교육단체 및 종교단체 활동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여성의 연령별 사회활동의 참여율의 특징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부의 사회활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 3> 여성의 분야별 사회활동 참여율(단위 : %)

여러 연구에서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가 주부와 가족에게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는 주부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며(김선미, 2004; 김혜경, 2000), 주부의 우울증 등 심리상태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강성구·김영수, 2000; 이제홍·최원오·이혁, 2008; 한아름·김여진, 2012; 한학진·강혜숙, 2012). 또한 주부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가족의 호응이나 지지를 얻으며,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종혜, 1995; 홍민희, 2004). 또한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는 주부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서지원, 2007).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는 주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줌과 동시에 주부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다. 2015년 하반기 정부가 2016년부터 “맞춤형 보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을 때, 일부 내전업주부에 대해서 아이들 보내 놓고 시간이 남아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존재로 강력하게 비난하였다(SBS뉴스, 2015; 베이비뉴스뉴스, 2015). 맞춤형 보육 관련 기사의 댓글들에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전업주부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싫어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전업주부들이 카페에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업주부들은 ‘놀고 있는’ 존재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 네티즌들의 시각은 여성혐오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전업주부들의 삶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업주부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 절하 때문이기도 하다. 전업주부들이 카페에 나와 있는 것은 바쁜 일과를 쫓겨 정보를 얻거나 혹은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카페에 나왔을 수도 있다. 또한 전업주부들의

활동을 사회활동 참여의 측면에서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주중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돌봄 시간에 각각 주중 230.5분과 283.2분을 투입하고 있어 매우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김소영, 2016). 일부 네티즌들은 전업주부의 이러한 삶이나 자료를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업주부를 가정을 위한 존재로만 생각할 경우 전업주부의 생활 중 상당수는 가족에 대한 ‘일탈’로 파악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맞춤형 보육의 논쟁은 전업주부 및 전업주부를 둘러싼 가족 정책 과정에서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확연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업주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맞춤형 보육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전업주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절차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머니투데이뉴스, 2016). 전업주부는 수입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책에서도 끼어들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수입노동을 하는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은 다양한 혜택의 직접적 대상자가 되지만, 전업주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간접적인 영향만을 누리는 주변인으로 취급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 토대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도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현희와 구혜령(2003)은 2003년에 가정관리학 분야 연구에서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도 여전히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분야별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최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부족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된다. 첫째, 전업주부를 가사노동 내지 소비활동의 주체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정현희·구혜령, 2003). 전업주부에 대한 파악을 가사노동 내지 소비활동의 주체로만 보게 되면 전업주부의 활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분석하기 어렵게 되고, 전업주부에 대한 정책 및 인식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사회활동 연구가 미진한 측면이 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교육 관련 사회활동 참여 중 학부모 단체의 학교의 운영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미진한 것이다. 셋째,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관련한 자료의 부족 또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공식력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들어 연구자들은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으며 데이터 수집 기간이 아닌 특정한 시기에 주로 일어나는 사회활동들은 제대로 포착이 어려웠다. 최근 들어 각종 패널자료 및 통계청의 생활시간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등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연구에 긍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이해에 갖는 중요성 및 가족 정책에서의 중요성,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가 주는 다양한 효과들에 착안하여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및 그 영향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영유아 양육은 전업주부에게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수 있고 자녀 양육 및 사회활동 참여 사이의 긴장 속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비교집단으로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의 남편의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동시에 분석하려 한다. 전업주부,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 남편이 가진 사회활동 참여의 특징 및 영향요인을 파악한다면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을 촉발하고,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다 잘 파악하게 됨으로 현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수입노동-가정생활-사회활동에 관한 긴장의 이해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또한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활동 참여의 개념

사회활동 참여는 “사회참여, 사회통합, 사회적 지지”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황중남, 2009),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여활동(김종선, 2016)이나 사회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Baldrige, 1979; 노혜숙 외, 1998에서 재인용), 사회적인 네트워크와 이에 기반한 교류 및 교환 및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자본(서지원, 2008; 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거나 가족 내에서 하는 행동들과 구분된다. 사회활동 참여는 i) 가정생활을 제외한 경제/문화/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보는 광의의 관점(박주홍·구차순·김건, 2012; 정현희·구혜령, 2003; 황중남 2009)과 ii) 가정생활과 수입노동활동을 제외한 다른 영역의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보는 협

의의 관점(장혜경·김영란, 2000), iii) 이것보다 더욱 좁게 해석하여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주부 운동 등으로 보는 사회운동으로의 관점(노혜숙 외, 1998; 서희열·정덕주, 2005)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관점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박주홍 외(2012)는 사회활동 참여를 사회참여라는 개념으로 지칭하면서 ‘직업활동, 문화활동, 여가활동과 스포츠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지칭하였고, 황종남(2009)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주어진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폭넓게 제시하였으며, 정현희와 구혜령(2003)도 전업주의 사회활동을 사회교육, 자원활동, 경제활동 영역으로 나누어 사회활동을 폭넓게 보고 있다. 협의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는 장혜경과 김영란(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사회활동의 정의 자체는 주부들이 ‘가정 밖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연구내용에서는 경제활동 참여가 들어있지는 않으며, 통계청(2015)에서는 사회활동 참여에 수입노동 참여는 제외하고 있다. 사회운동으로의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로는 노혜숙 외(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를 사회운동 중 주부운동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을 수입노동 및 가정생활을 제외한 활동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수입노동까지 사회활동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분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의 대상 및 사회활동 범위에 따른 연구 분류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관련 연구는 대상과 활동영역 범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표1>에는 관련 연구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주부와 관련된 사회활동 참여는 스포츠 관련 활동 등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사회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일반적인 주부(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포함)를 대상으로 사회활동 전반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정현희와 구혜령(2003)은 전업주부의 52.6%가 사회교육활동에 참여하며 주 평균 참여시간은 4.99 시간이었으며, 자원봉사 활동에는 20.8%가 월평균 8.97시간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전업주부를 사회교육 참여 여부, 자원활동 참여 여부, 경제활동 요구를 기준으로 취업요구 집단, 취업무관심 집단, 사회활동 지향집단으로 유형화하였고 각 집단에 따라서 연령, 가계소득, 전업주부 만족도, 시간제약, 금전제약 등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장혜경과 김영란의 연구(2000)에서는 문화·교양·학습활동에 38.9%, 아파트 부녀회·동네 통반장 등의 지역활동에 16.6%, 학부모 모임, 운영위원회 등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22.3%, 사회봉사활동 또는 자원활동에 13.8%, 사회단체활동에 2.1%,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 등의 정치참여에 2.5%가 참여하는 등 43.5%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활동 미참여 이유는 돌봄노동(21.1%), 경제적 여유(20.6%), 가사 부담(16.5%), 자신감(16.0%) 등으로 나타났다. 한아름과 김여진(2012)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86.9%가 한국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주민 단체 참여 60.1%, 자녀양육·교육 참여 56%, 지역사회 참여·49.4%, 경제 및 직업 참여 47.6%, 종교 참여 43.5% 등 비교적 높은 사회활동 참여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정은(2010)은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이 종교나 출신국가를 중심으로 한 모임에 참여하여 주부로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낮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주부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는 지역활동, 사회봉사활동, 교육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활동은 주부

〈표 1〉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연구 분류와 연구 사례

대상 활동영역범위	일반적 주부 ¹⁾	특정 주부
사회활동 전반	사회활동 참여 및 유형화 관련 연구 (정현희·구혜령, 2003) 전업주부의 일반적 특성 차원의 연구 (장혜경·김영란, 200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연구(한아름·김여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관련 연구(이정은, 2010)
특정 사회활동	전업주부의 생활체육 참여 관련 연구 (이제홍·최원오·이혁, 2008) 여가활동 관련 연구 (한학진·강혜숙, 2012; 홍윤숙, 2009) 전업주부의 종교활동 관련 연구(김선미, 200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여가활동(김하영,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품앗이육아 공동체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정혜선, 2010) 중년기 전업주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관련 연구(김혜경, 2000) 중산층 전업주부의 평생교육활동 참여 관련 연구(배수옥, 2011)

자신의 육구뿐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들로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를 위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2) 특정 사회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는 여가나 생활체육, 육아 공동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전업주부들의 생활체육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이제홍 외(2008)는 전업주부들의 생활체육 참여는 삶의 느낌이나 삶의 만족과 같은 삶의 질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한학진과 강혜숙(2012)에 의하면 직장여성과 전업주부 친구나 동호회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16.8~34.7%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주일동안 여가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행복수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 기혼여성이 여가활동 참가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자아정체감을 연구한 김선미(2004)는 전업주부의 종교활동 참가는 전업주부에게 가치 및

자원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주부의 품앗이육아공동체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정혜선(2010)은 주부의 육아공동체 참여는 소통 공간의 의미가 있고, 주부 간에 상호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김혜경(2000)은 중년기 전업주부의 자원봉사 활동을 연구하였는데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따라서 중년기 전업주부의 사회정체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산층 전업주부의 백화점 문화센터의 이용에 관한 연구(배수옥, 2011)에서는 평생학습 관점에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주부의 문화센터 이용은 ‘취미’로 다니는 경우와 ‘일’로서 다니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일로 다니는 경우는 삶의 대안 중 하나로 종교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수준에서 문화센터 이용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전업주부의 특정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활동이 삶의 질이나 행복수준, 사회정체감 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는 주부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가치 및 자원이 될 뿐 아니라 삶의 느낌이나 질을 높이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전업주부 대상 연구도 일반적 주부 대상 연구로 포함시켰다. 특정 주부 영역에는 취업/전업 이외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2. 사회활동의 분류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활동 전반을 분석한 연구들과 사회활동 중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여 연구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회활동 전반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현희와 구혜령(2003)은 전업주부의 사회적 활동을 사회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 경험으로 나누었으며, 장혜경과 김영란(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참여를 문화·교양·학습활동, 아파트부녀회·동네 통반장 등의 지역활동, 학부모 모임·운영위원회 등 교육활동, 사회봉사활동 또는 자원활동, 사회단체 참여활동,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 등의 정치 참여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한아름과 김여진(2012)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한국관련 교육, 자녀양육·교육, 지역사회, 이주민단체, 경제 및 직업, 종교, 자원봉사, 기타(직장동아리, 스포츠) 등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청(2015)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여부를 사회분야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인권단체 등), 경제분야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문화분야단체(취미, 스포츠 등),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종교분야 단체,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교육단체(학부모회, 교사 단체 등),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장혜경과 김영란(2000)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활동을 분류하였으나,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는 종교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활동 종류는 포괄적이나 학습 관련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별도 분류가 없으며, ‘단체’라는 표현상 상대적으로 소모임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 반응이 미흡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현희와 구혜령(2003)은 사회교육, 자원활동, 경제활동으로 분석 목적에 맞게 사회활동을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며, 한아름과 김여진(2012)도 사회활동 참여를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대

상에 맞게 활동 분류를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3.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 요인

1) 자녀의 수

막내 자녀 연령이 8세 이상인 경우 사회활동 참여가 높다는 연구(장혜경·김영란, 2000)가 있으며,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자녀의 수가 1, 2명인 경우가 그보다 많은 경우보다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홍민희, 2004). 장혜경과 김영란(2000) 및 김정숙(2006)의 연구에서는 돌봄노동 부담이 사회활동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서 자녀의 수가 사회활동 참여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연령

40대에서 50대의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다는 연구(장혜경·김영란, 2000; 백종혜, 1995)와 주부의 연령이 36-40세일 때 문화프로그램 활동 참여가 높다는 연구(홍민희, 2004),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활동이 증가한다는 연구(정현희·구혜령, 200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가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왔다.

3) 교육수준

주부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사회활동 참여가 높다는 연구(장혜경·김영란, 2000)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진다는 연구(정현희·구혜령, 2003),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대졸이나 고졸의 참여율이 높고, 대학원졸은 오히려 참여율이 낮아진다는 보고(홍민희, 2004) 등이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수준은 사회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일부 사회활동과 관련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변인으로 파악된다.

4) 사회경제 관련 변인

장혜경과 김영란(2000)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여유 부족이 주부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이며 자원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극적 사회참여형에 월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0%에 가까운 비중을 보여서 사회활동 참여에 사회경제적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정 · 강현정, 2013).

5) 성별

Booth(1972)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집단을 도구적 집단과 표현적 집단으로 나누고,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 정치 등 도구적 집단(Instrumental Organization)에 많이 참여하는 반면에, 여성은 교육, 종교, 여가, 건강·복지 등 표현적 집단(Expressive Organization)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선미(2008)는 자원활동 참여동기를 의무적 동기, 타인기대부응 동기, 도구적 동기로 나누었다. 의무적 동기는 사회환원, 도덕적 의무와 책임, 사회도덕성 강조, 많이 가진 자의 의무, 사회문제해결에 도움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이고, 타인기대 부응동기는 친구/동료 요청, 고용주 장려, 종교적 신념, 자기개발에 도움, 부모-친척 권유 등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를 맞추어 주려는 동기이며, 도구적 동기는 의미 있는 여가나 다양한 경험, 자기 위로 등 효용성을 얻고자 하는 동기이다. 이선미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의무적 동기 및 타인기대부응 동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mberson et al.(1996)는 정식 사회 협력(Formal social integration)의 횡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앞선다고 하였다.

4. 사회활동 참여의 영향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는 주부의 우울증 등 심리

상태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아름 · 김여진, 2012; 이재홍 외, 2008; 한학진 · 강혜숙, 2012; 강성구 · 김영수, 2000). 또한 주부의 정체성에도 주부의 사회활동은 영향을 준다(김혜경, 2000; 김선미, 2004). 주부들은 자신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가족의 호응도가 긍정적이며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백중혜, 1995). 주부들은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로 주부 자신의 가정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한다고 답변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가족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홍민희, 2004). 이들 선행 연구에서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며,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생활만족감 또한 누리게 되는 과정이자,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파악되었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15)이 2010년도 수행한 주택인구총조사 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1% 인구 표본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자료에는 총468,282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며, 주요 수집항목은 가구일련번호,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수준,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이다. 또한 본 자료에서는 가구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별도의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한 가구 정보는 가구의 구분, 거주기간, 거주공간 관련 정보 등 주택에 관한 정보, 보유 교통수단이나 정보통신기기 등이 있다. 본 조사의 기준일은 2010년 11월 1일 현재이고 2011년 11월 1일에서 15일까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및 그 거처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조사 전체의 규모는 남자 23,159천명, 여자 22,978천명 등 46,136천명에 이른다.

본 조사에서 사회활동은 사회분야 단체(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경제분야 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종교분야 단체,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기타 및 전체적 사회활동 참여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사회활동 중 해당되는 곳 모두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으며, 집에서 세는 나이로 16세부터 조사하였다. 또한 회비만 납부하는 활동은 배제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활동한 경우에만 활동 참여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주의할 점은 인구주택총조사의 문항이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가 있습니까?”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소규모의 모임들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전체 사회활동에 비참여를 묻는 문항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으면 “1”로 표시가 되지만, 세부 사회활동 참여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참여를 “1”로, 비참여를 “0”으로 값을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독립변인들로는 영아 자녀의 수, 유아 자녀의 수, 초등 자녀의 수 및 응답자의 나이, 교육수준, 방의 개수, 주거의 점유형태를 활용하였다. 방의 개수는 잠을 자는 방, 기타 용도의 방, 거실(대청마루 포함), 식사용 방의 개수를 더한 값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주거의 점유형태는 원래의 조사는 자기 집, 전세(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등)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자가와 비자가로 단순화하였고, 비자가에는 전세(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등)을 포함시켰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영유아를 둔 유배우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를 둔 유배우 전업주부 및 취업주부, 전업주부남편의 사회활동 참여의 현황 및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유아를 둔 유배우 전업주부 및 취업주부, 전업주부남편의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대상 및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영유아를 둔 유배우 전업주부이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아는 만2세미만으로 유아의 경우에는 7세미만의 미취학아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으로 가구주와의 관계가 가구주 본인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는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 등 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집단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수행하였다. 취업주부는 주로 일을 하였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을 하였거나, 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주부로서 그 외 조건은 전업주부와 같다. 전업주부 남편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업주부의 배우자로 한정하였다.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전업주부는 <표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총 11,196명으로 집계되었는데, 74.2%가 30대였으며 20대가 17.5%, 40대 이상이 8.3%였고, 고졸이 38.1%, 전문대졸 28.4%, 대졸 27.6%, 대학원 이상이 3.6%, 고졸 미만이 2.4%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이 39.0%, 2명이 49.2%, 3명이 10.8%, 4명 이상이 1.0%였고 막내자녀의 연령은 0세~1세가 41.6%, 2~6세가 58.4%였다. 취업주부는 총 7,84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20대 이하가 13.2%, 30대가 75.0%, 40대 이상이 11.6%였고, 고졸이 31.5%, 전문대졸 31.8%, 대졸 31.8%,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연령	~29세	1,960	17.5%	막내자녀 연령	0세	2,433	21.7%	
	30세~39세	8,308	74.2%		1세	2,301	20.6%	
	40세~	928	8.3%		2세	1,799	16.1%	
	계	11,196			3세	1,501	13.4%	
교육수준	고졸 미만	264	2.4%		4세	1,201	10.7%	
	고졸	4,263	38.1%		5세	1,055	9.4%	
	전문대졸	3,178	28.4%		6세	906	8.1%	
	대졸	3,086	27.6%		계	11,196		
	대학원 이상	405	3.6%		첫째자녀 연령	~1세	2,335	20.9%
	계	11,196				2세~6세	5,624	50.2%
가족수	2명	90	0.8%			7세~12세	2,815	25.1%
	3명	3,998	35.7%			13세~19세	422	3.8%
	4명	5,194	46.4%			계	11,196	
	5명	1,534	13.7%	첫자녀 교육수준		미취학	7,815	69.8%
	6명이상	380	3.4%			초등학생	2,894	25.8%
	계	11,196			중학교	328	2.9%	
자녀수	1명	4,372	39.0%		고등학교	112	1.0%	
	2명	5,506	49.2%		대학교 이상	47	0.4%	
	3명	1,206	10.8%		계	11,196		
	4명이상	112	1.0%					
	계	11,196						

대학원 이상이 8.6%, 고졸 미만이 2.9%이었으며, 자녀수는 1명이 39.3%, 2명이 47.3%, 3명이 12.1%, 4명 이상이 1.3%였다. 전업주부 남편은 총 10,92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20대 이하가 6.9%, 30대 70.3%, 40대 이상이 22.8%였고, 고졸이 30.5%, 전문대졸 이하 23.5%, 대졸 이하 34.5%, 대학원 이상 9.0%, 고졸 미만이 2.5%였으며, 자녀수는 1명이 38.9%, 2명이 49.2%, 3명이 10.8%, 4명 이상이 1.0%였다.

3) 분석 도구

본 연구의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은 Excel 2016와 Access 2016을 이용하였으며, 분할표 분석은 SPSS 22와 R 3.2.5,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R 3.2.5를 이용하였다.

IV. 통계청의 주택인구총조사에 나타난 전업주부들의 사회활동 참여

1.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24.2%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분야별로 보면 친목단체활동에 1,157명 24.2%가 참여하고 있고, 친목단체에 1,157명 10.3%, 종교분야 단체에 10.0%, 문화분야 단체에 3.5%, 교육단체에 3.4%, 사회분야단체에 1.4%, 지역단체에 1.1%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는 친목단체나 종교분야 단체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인구주

택종조사의 조사 방식이 ‘단체’활동만을 조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의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율은 선행연구(장혜경·김영란, 2000; 정현희·구혜령, 2003)들의 결과가 43.5%~52.6%였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행연구에서는 지역활동이나, 자녀교육 지원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모두 10%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 차이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는 ‘단체’활동 이외의 비공식적 활동들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표 3〉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의 분야별 참가 현황

사회활동 단체별 참가율(n=11,190)	참여자수 (참여율)
사회활동 전반	2,706 (24.2%)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1,157 (10.3%)
종교분야 단체	1,122 (10.0%)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393 (3.5%)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384 (3.4%)
사회분야단체(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154 (1.4%)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123 (1.1%)
경제분야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15 (0.1%)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12 (0.1%)
기타	10 (0.1%)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의 성격을 보면 Booth(1972)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분류를 토대로 보면 여성이 많은 역할을 하는 주로 표현적 집단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활동 측면에서 성역할의 측면이 가사노동만큼이나 견고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전업주부 남편과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친목단체와 종교단체, 문화분야, 교육단체 등의 참여를 표현적 집단에 대한 참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구적 집단일 수 있는 정치분야, 경제분야, 지역단체 분야, 사회분야에 대한 참여는

2% 미만으로 낮은 참여를 기록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가족 구성원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 자료의 한계 상 추후 연구에서 밝혀내야 할 문제이다.

2.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비교집단과의 사회활동 참가율 차이

(1)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과의 사회활동 참여비교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을 대상으로 분할표 분석을 하여 본 결과 <표 4>와 같이 지역단체 및 기타를 제외한 사회활동 전반 및 개별 사회활동 분야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는 사회활동 전반에 24.2%가 참여하는 반면 취업주부는 38.7%, 전업주부남편은 37.4%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는 전업주부 남편에 비해서 높거나 약간 낮은 정도 수준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이는 반면 전업주부는 전업주부 남편에 비해서 13.3%p, 취업주부에 비해서 14.6%p 낮은 참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전업주부는 대부분의 분야별 사회활동 참여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았으나, 종교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참여를 기록하였고, 교육단체에서는 취업주부보다는 낮으나 전업주부 남편보다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전업주부에게 있어서 종교분야 활동 참여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이며(김선미, 2004), 또한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단체 참여에 있어서 취업주부의 참여가 전업주부보다 높은 점은 특이할만하다. 취업주부의 직업활동을 보면 교육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수가 1,327명으로 16.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직업적인 이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참고로

(표 4)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전업주부남편의 사회활동 참여율 및 분할표 분석 결과

구분 (n=37,514)	전업 주부 (n=11,196)	취업주부 (n=7,840)		전업주부 남편 (n=10,920)		카이제곱 검증
	참여율	참여율	(전업주부대비)	참여율	(전업주부대비)	
사회활동 전반	24.2%	38.7%	(+14.6%p)	37.4%	(+13.3%p)	p<0.001
사회분야단체 (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1.4%	2.5%	(+1.1%p)	2.2%	(+0.8%p)	
경제분야단체 (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0.1%	4.3%	(+4.2%p)	4.7%	(+4.6%p)	
문화분야 단체 (취미, 스포츠 등)	3.5%	3.9%	(+0.4%p)	9.3%	(+5.8%p)	
정치분야 단체 (정당활동 등)	0.1%	0.3%	(+0.2%p)	0.4%	(+0.3%p)	
종교분야 단체	10.0%	11.7%	(-1.7%p)	8.4%	(-1.7%p)	
친목단체 (동창회, 향우회 등)	10.3%	15.9%	(+5.6%p)	20.4%	(+10.1%p)	
교육단체 (학부모, 교사단체 등)	3.4%	8.5%	(+5.1%p)	1.0%	(-2.4%p)	
지역단체 (아파트 주민단체 등)	1.1%	1.5%	(+0.4%p)	1.4%	(+0.3%p)	
기타	0.1%	0.1%	(+0.1%p)	0.1%	(+0.0%p)	

교육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전업주부 남편이 3.33%로 취업주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문화분야에는 전업주부는 3.5%가 참여하는 반면, 취업주부는 3.9%, 전업주부 남편은 9.3%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전업주부 남편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으며, 친목단체에는 전업주부 10.3%, 취업주부 15.9%, 전업주부 남편 20.4%로 수입노동 및 성별에 따라 활동의 참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Booth(1972)의 결과와 비교하면 주부의 경우 종교분야 및 교육단체 분야의 참여가 남편보다 높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문화분야 및 친목단체 분야에 대한 참여는 남편보다 낮아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업주부 남편이 표현적인 집단에 참여하는 것이 높다고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문화분야 및 친목단체 분야가 단순히 표현적인 집단이 아

니라 도구적인 성격을 지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Umberson et al.(1996)은 정식 사회 협력 (Formal social integration)의 횡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앞선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전업주부 남편의 사회참여 활동이 높게 나타나는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지만, 본 연구는 참여여부에 대한 연구이고 Umberson et al.(1996)는 참여 횡수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단순한 비교는 어려우며 향후 연구에서 활동 횡수나 시간 등을 확장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에게 있어서 사회활동 참여가 취업주부나 전업주부 남편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은 분야도 종교분야나 교육단체 분야로 가족의 돌봄 기능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주부의 삶에서 가정-사회의 균형이 전업주부의 삶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제제기의 일부 네티즌의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에 대한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 및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에서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 로지스틱 회귀분석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의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서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도 같이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10개 사회활동 영역 중에서 전업주부의 참여 수준이 낮은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지역단체, 기타를 제외한 6개 영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영아/유아/초등학생 자녀의 수, 나이, 교육수준, 방의 개수, 주거의 점유형태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표 5-1>과 <표 5-2>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사회활동 참여 전반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아 자녀의 수, 나이, 교육수준, 방의 개수, 주거의 점유형태였다. 전업주부에 있어 유아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사회활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종교 단체의 참여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 나이나 교육수준이 향상될수록 사회활동 참여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나이나 교육수준은 사회적인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통해 볼 때,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

서 고졸 등의 집단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의 개수나 점유형태는 경제력을 보여주는 변인으로 방수가 경제적인 수준이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특히 점유형태에서는 전업주부는 자가-비자가의 차이가 영향이 없었지만,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 남편에는 비자가가 사회활동 참여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유아 자녀의 수는 유의하지 않은 대신, 초등학생 자녀의 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다. 출생순위 높은 자녀가 초등학생에 들어가면서 종교나 교육 관련 사회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주부에게 있어서 자기 집에 비해서 비자가가 사회활동 참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남편의 경우에는 영아자녀의 수와 유아 자녀의 수, 초등학생 자녀의 수 모두가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남편들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 사회분야 활동 참여

전업주부의 사회분야 활동 참여는 영아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비교집단에서는 영아 자녀의 수가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전업주부에게는 영아 자녀의 양육 부담이 사회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졸보다 사회분야 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전업주부 남편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 등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나 전업주부 남편은 점유의 형태가 비자가인 경우에 사회활동 분야의 참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방의 개수는 전업주부 남편의 참여에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표5-1〉 전업주부 및 비교집단의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사회활동 전반 참여 (참여=1, 불참=0)		전업주부 (n=11,196)	취업주부 (n=7,840)	전업주부남편 (n=10,920)
상수		-3.46 ***	-2.73 ***	-2.49 ***
영아 자녀의 수		-0.07	0.13	0.17 ***
유아 자녀의 수		0.11 *	0.09	0.19 ***
초등학생 자녀의 수		0.36	0.23 ***	0.21 ***
나이		0.04 ***	0.04 ***	0.03 ***
교육수준 (기본=고졸이하)	전문대학 졸업 이하	0.30 ***	0.54 ***	0.12 *
	대학교 졸업 이하	0.50 ***	0.83 ***	0.23 ***
	대학원 이상	0.76 ***	1.41 ***	0.75 ***
방의 개수		0.09 **	0.06 *	0.10 ***
점유형태(기본=자가)	비자가	-0.06	-0.13 **	-0.14 ***
종속변수: 사회분야 단체 참여 (참여=1, 불참=0)		전업주부 (n=11,196)	취업주부 (n=7,840)	전업주부남편 (n=10,920)
상수		-6.73 ***	-7.69 ***	-6.80 ***
영아 자녀의 수		-0.66 **	0.08	0.23
유아 자녀의 수		0.09	-0.13	0.16
초등학생 자녀의 수		0.38 **	0.34 **	0.25 *
나이		0.07 ***	0.10 ***	0.05 **
교육수준 (기본=고졸이하)	전문대학 졸업 이하	-0.02	0.27	0.37
	대학교 졸업 이하	0.12	0.29	0.41 *
	대학원 이상	0.76 *	0.58 *	0.82 ***
방의 개수		-0.02	0.06	0.17 *
점유형태(기본=자가)	비자가	-0.34 *	-0.16	-0.32 **
종속변수: 문화 분야 단체 참여 (참여=1, 불참=0)		전업주부 (n=11,196)	취업주부 (n=7,840)	전업주부남편 (n=10,920)
상수		-4.69 ***	-5.44 ***	-2.27 ***
영아 자녀의 수		-0.58 ***	-0.22	0.15
유아 자녀의 수		-0.10	-0.33 *	0.11
초등학생 자녀의 수		0.08	0.09	0.16 *
나이		0.03 *	0.05 **	-0.01
교육수준 (기본=고졸이하)	전문대학 졸업 이하	0.17	0.61 ***	0.32 ***
	대학교 졸업 이하	0.45 ***	0.61 ***	0.45 ***
	대학원 이상	0.51 *	0.95 ***	0.41 ***
방의 개수		0.10	0.13	-0.02
점유형태(기본=자가)	비자가	-0.18	-0.11	-0.19 **

* p<0.05, ** p<0.01, *** p<0.001

〈표 5-2〉 전업주부 및 비교집단의 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종교 분야 단체 참여	(참여=1, 불참=0)	전업주부 (n=11,196)	취업주부 (n=7,840)	전업주부남편 (n=10,920)
상수		-5.02 ***	-4.59 ***	-4.95 ***
영아 자녀의 수		0.12	0.15	0.23 **
유아 자녀의 수		0.28 ***	0.20 **	0.30 ***
초등학생 자녀의 수		0.38 ***	0.23 ***	0.32 ***
나이		0.06 ***	0.06 ***	0.04 ***
교육수준 (기본=고졸이하)	전문대학 졸업 이하	0.47 ***	0.48 ***	0.35 **
	대학교 졸업 이하	0.88 ***	0.51 ***	0.85 ***
	대학원 이상	1.03 ***	0.88 ***	1.58 ***
방의 개수		-0.05	-0.03	-0.08
점유형태(기본=자가)	비자가	0.22 **	0.07	0.32 ***
종속변수: 친목단체 참여	(참여=1, 불참=0)	전업주부 (n=11,196)	취업주부 (n=7,840)	전업주부남편 (n=10,920)
상수		-3.18 ***	-2.97 ***	-2.96 ***
영아 자녀의 수		-0.08	0.05	0.09
유아 자녀의 수		-0.06	0.03	0.07
초등학생 자녀의 수		0.13 *	0.06	0.15 **
나이		0.01	0.03 ***	0.03 ***
교육수준 (기본=고졸이하)	전문대학 졸업 이하	0.12	0.25 **	0.09
	대학교 졸업 이하	0.14	0.12	0.05
	대학원 이상	0.12	0.13	-0.01
방의 개수		0.18 ***	0.06	0.14 ***
점유형태(기본=자가)	비자가	-0.25 ***	-0.26 ***	-0.25 ***
종속변수: 교육단체 참여	(참여=1, 불참=0)	전업주부 (n=11,196)	취업주부 (n=7,840)	전업주부남편 (n=10,920)
상수		-6.91 ***	-3.92 ***	-8.60 ***
영아 자녀의 수		-0.62 ***	-0.08	0.16
유아 자녀의 수		0.06	0.16	0.23
초등학생 자녀의 수		0.79 ***	0.46 ***	-0.01
나이		0.06 ***	0.00	0.05
교육수준 (기본=고졸이하)	전문대학 졸업 이하	0.25	0.55 ***	0.30
	대학교 졸업 이하	0.45 ***	1.58 ***	1.17 ***
	대학원 이상	0.68 **	2.31 ***	2.77 ***
방의 개수		0.26 ***	0.08	0.21
점유형태(기본=자가)	비자가	0.07	-0.13	-0.14

* p<0.05, ** p<0.01, *** p<0.001

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활동 참여에 있어서 주거환경 변수 혹은 경제력 변수가 영향력이 있으며, 전업과 취업,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문화 분야 활동 참여

전업주부만이 영아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취미나 스포츠 등의 문화 분야 활동 참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분야 활동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취업주부에게는 유아자녀의 수가 문화 분야 활동 참여를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지

만, 영아자녀의 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이었다. 이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에게 있어서 영아 돌봄과 유아 돌봄이 각기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초등학교 자녀의 수는 전업주부남편에게 문화분야 활동 참여를 늘려 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기가 돌봄 노동의 부담이 주는 시기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남편들이 초등학교 자녀를 동반한 문화활동에 나서기 때문 일 수도 있다. 나이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에게만 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전업주부 남편의 경우 나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교육단체 참여와 유사하지만 다른 사회활동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은 세 집단 모두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업주부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하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경우와 문화분야 활동 참여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활동 참여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업주부에 있어서는 고졸 이하 및 전문대졸 이하, 그 외 집단에서는 고졸이하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육아 보조나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정책의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방의 개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고, 점유형태는 전업주부 남편에게만 문화분야 활동 참여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4) 종교 분야

종교 분야의 경우에는 유아자녀의 수, 초등학교 자녀의 수, 나이와 교육수준은 모든 집단에 있어서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자녀의 수는 사회활동 참여에 있어서 전업주부 남편에게만 종교분야 단체활동 참여를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방의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거의 점유형태는 전업주부와 전업주부남편에는 비자가일 수록 참여가 많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의 기능이 사회적인 압박감

을 줄여주거나 자녀의 교육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며, 김선미 (2004)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5) 친목단체

친목단체 참여에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의 수는 전업주부, 전업주부남편의 친목단체 활동을 늘리는 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나이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를 제외한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 남편에서 유의미하였다. 취업주부는 전문대학졸업 이하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비해서 사회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외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업주부와 전업주부 남편의 경우 방의 개수가 공통적으로 친목단체 활동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유 형태는 세 집단 모두에서 비자가가 사회활동 참여를 낮추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자원이 친목단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교육단체

영아 자녀의 수는 전업주부의 교육단체 활동 참여를 줄이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자녀의 수는 전업주부, 취업주부의 교육활동 참여를 늘리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영아 자녀의 양육 때문에 교육단체 참여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은 전업주부의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을 논의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전업주부에게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단체 참여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업주부는 돌봄과 참여라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으며 취업주부는 이에 더해 수입노동이라는 ‘삼중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다만, 주부의 교육단체 참여는 부담일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을 넓히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전업주부 남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자녀의 수가 유의미하

지 않았다. 초등학생 자녀는 교육단체 참여를 높이는 변인이 되지만, 전업주부 남편은 전업주부에게 교육단체 참여를 미루고 있거나 교육단체 참여에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업주부 남편의 교육단체 참여율은 전업주부의 교육단체 참여율보다 2.4%p 낮아 전업주부의 29% 수준의 참여율을 보인다. 교육수준은 모든 집단에서 대학교 졸업 이하 및 대학원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 교육단체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주부는 전문대학 졸업도 고등학교 졸업에 비해서 교육단체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의 개수는 전업주부에서만 유의하였고, 점유형태는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7) 소결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의 사회활동 참여 관련해서 나이나 교육수준은 대부분의 사회활동 참여 활동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나이나 교육수준의 경우 사회적인 자본의 증가나 혹은 대처 능력의 향상 등이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영아 자녀의 수, 유아 자녀의 수나 초등학생 자녀의 수는 사회활동 참여의 저해요인이자 조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로 인한 돌봄노동 등의 가사노동 부담으로 인해 전업주부는 사회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지만, 유아 자녀나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경우, 전업주부는 돌봄노동의 부담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압박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가 취업주부나 전업주부 남편 등에 비해서 낮은 것은 돌봄 노동의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으로 풀이 될 수도 있다.

방의 개수나 주거의 점유형태는 주거환경 내지 사회경제적 자원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다. 방의 개수는 사회활동 참여 전반 및 전업주부 남편의

사회분야 참여, 취업주부의 문화분야 참여, 전업주부 및 전업주부 남편의 친목단체 참여와 교육단체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방의 개수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늘리거나 혹은 문화 활동과 관련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의 점유형태는 자가 여부에 따라서 각 집단의 분야별 사회활동 참여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 중 비자가의 경우 사회/문화/친목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종교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사회경제적 변수가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그 영향력이 분야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는 종교단체나 교육단체를 제외하고는 비교집단에 비해서 참여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전업주부의 역할이 자녀 돌봄 등을 포함하여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치중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Booth(1972)의 연구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영아자녀의 수가 전업주부의 사회분야, 문화분야 참여나 교육분야 참여를 줄이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전업주부의 돌봄노동으로 인한 삶의 압박을 보여준다. 영아자녀수가 전업주부 남편에게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거나 오히려 참여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점은 추후 구체적인 작동과정이나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업주부의 개인을 위한 활동일 가능성이 높은 친목단체나 문화분야 활동의 참여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고 가족을 위한 활동이 가능성이 높은 종교나 교육 분야에서의 활동 참여가 높다는 점은 문체제기에서 나온 전업주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는 거리가 먼 결과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전업주부는 삶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통계청에서 2010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을 기초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는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영아 자녀 수, 유아 자녀 수, 초등학교 자녀 수, 주부의 나이나 교육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전업주부 내의 하위 집단이 존재하며 그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업주부를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전업주부 내에서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력 이하의 집단에서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수준에 따라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남편과의 사회활동 참여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업주부는 전업주부 남편에 비해서 사회활동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 분야나 교육단체의 활동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주부에 비해서는 전 분야에 걸쳐서 사회활동 참여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전업주부는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서 가정활동에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업주부의 삶에서 가정-사회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업주부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전업주부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 남편에 있어서도 단순한 일-가정 균형이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의 질과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전업주부 및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공통점과 차이가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 영아 자녀는 전업주부의 사회 및 문화, 교육 분야의 사회활동 참여를 줄이는 변인이었지만, 취업주부에게는 유의미 하지 않았고, 전업주부 남편에게는 종교 분야의 참여를 높이는 변인이었다. 교육활동에서 영유아는 전업주부 남편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전업주부는 영아 자녀는 사회활동을 줄이는 변인으로 초등 자녀는 늘리는 변인으로 작용했고, 취업주부에게는 초등학교 자녀만이 사회활동을 늘리는 변인이었다. 나이와 교육수준은 대부분의 사회활동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나이와 교육수준의 차이는 사회활동 참여에서 나이와 교육수준을 고려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다만, 이를 나이나 교육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활동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차이를 줄이는 차원에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성은 분명하다. 교육수준이 낮은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은 대부분 분야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보의 부족이나 사회적 자본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정체성 형성이나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전업주부,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 남편에 대해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도우미나 활동 프로그램 등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자원경영 상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전반에 걸쳐 그리고 영유아기 전업주부와 남편 간에 사회활동 참여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업주부와 전업주부 남편과의 가사노동 참여의 차이만큼이나 사회활동 참여에서도 성별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업주부는 종교분야와 교육단체 관련 사

회활동 참여 영역이 전업주부 남편보다 높은 반면, 전업주부 남편은 친목단체, 문화단체, 경제단체 등 그 외 분야에서 전업주부보다 높게 나타난다. 사회활동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성별 차이에 대해서 학문적 관심은 물론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전업주부의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은 분야에 대한 참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육아 도우미를 더욱 활성화하거나 보육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주부에 직접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남편의 사회활동 참여를 할 수 있는 휴가 등 제공 등의 간접적인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활동 참여 분야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업주부의 사회활동은 전업주부의 정체감 및 삶의 질 등과 관련이 있으나 현재까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사회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라는 측면에서(Iezzi & Deriu, 2014),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 건강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은 현재의 수입노동 측 취업을 중심으로 한 시각에서 전업주부들의 사회활동의 참가를 조장하고 지원하되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을 완화하는 방향을 포함하여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가 낮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와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과부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주부의 사회활동은 가족구성원의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영유아 돌봄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종교

단체나 교육단체에서의 사회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같이 키우는 주부의 경우, 영유아로 인한 돌봄 노동의 과중한 부담과 함께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의 압력을 동시에 부담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한 대안은 단순히 참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부담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보육바우처 등을 추가 제공하는 방법이나 자녀와 함께 사회활동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전업주부 남편에 있어서도 교육단체 사회활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전업주부 남편이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어도 직장 생활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위한 정책으로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등과 유사하게 교육 참여 연가(年假)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의 참여를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전업주부 남편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영아 자녀만을 둔 가족, 유아 자녀만을 둔 가족, 초등학생 자녀만을 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생활주기를 맞는 가족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본 데이터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방의 개수나 주거의 점유형태 등 경제 사회적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볼 때, 소득 등 그 외의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로서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역동성이나 참여자가 인식한 사회적인 맥락이나 구조 등에 대한 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이 갖는 사회적 구조나 맥락을 보여 줄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의 참여를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단체 활동 이외의 형태를 포함한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강성구·김영수(2000). 전업주부의 운동참여 및 여가활동참여가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4, 189-197.
- 2) 김선미(2004). 전업주부는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는가?-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과 종교활동 그리고 정당화. 한국생활과학회지, 13(56), 723-739.
- 3) 김정숙(2006). 주부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소영(2016).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변화와 관련요인- 1999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윤정·강현정(2013).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090-1099.
- 6) 김종선(2016). 한국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김하영(200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가유형, 여가유능감 및 가족여가공유여부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85-96.
- 8) 김혜경(2000). 중년기 전업주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사회적 정체감 :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5, 129-153.
- 9) 노혜숙·한정신·전경옥·김영희·김영란(1998). 한국주부의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37, 167-294.
- 10) 머니투데이뉴스(2016.6.23.). 광고비 20억, 인력 55명 쓰고도 보육혼란 자초한 복지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62215012239199&outlink=1>.
- 11) 박주홍·구차순·김건(2012), 경력노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재능나눔활동을 중심으로-. (재)부산복지개발원.
- 12) 배수옥(2011). (여성평생교육에 관한) 교육인류학 리포트 : 백화점 문화센터의 중산층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파주: 이담Books.
- 13) 백중혜(1995). 주부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베이비뉴스뉴스(2015.9.17.). 어린이집 논란, 누가 전업주부를 화나게 하나? 정책 잘못 만든 정부, 여성 혐오자들...“보육 정책 관점 바꿔야”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509152110513970005068&categorycode=0010>.
- 15) 서지원(2007).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1-14.
- 16) 서지원(2008), 노년기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의 방향 :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31-55.
- 17) 서희열·정덕주(2005). 여성의 사회활동 극대화를 위한 조세 지원 방안. 세무학연구, 22(2), 67-95.
- 18) 이선미(2008). 여성은 왜 자원활동에 참여하는가? : 자원활동 참여동기와 성찰성. 젠더와 사회, 7(2), 212-236.

- 19) 이정은(2010).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인 신부와 지역사회 활동. *중앙민속학*, 15, 127-171.
- 20) 이제홍·최원오·이혁(2008). 전업주부의 생활체육 참여특성과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1), 617-629.
- 21) 이준웅·김은미 문태준(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한국언론학보*, 49(3), 234-261.
- 22) 장혜경·김영란(2000). 전업주부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23) 정현희·구혜령(2003).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1), 153-167.
- 24) 정혜선(2010).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품앗이육아공동체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3), 429-441.
- 25) 통계청(2012). 2011년 혼인 이혼 통계.
- 26) 통계청(2015). 2010 인구주택총조사.
- 27) 통계청(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28) 한아름·김여진(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75-104.
- 29) 한학진·강혜숙(2012). 여성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직장여성과 전업주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4)1, 181-200.
- 30) 홍민희(2004).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주부 참여가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홍운숙(2009).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여가만족과 여가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8(2), 1239-1246.
- 32) 황중남(2009). 중·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Booth, A.(1972). Sex and social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2), 183-193.
- 34) Iezzi, D. F. & Deriu, F.(2014). Women active citizenship and wellbeing: The Italian case. *Quality and Quantity*, 48(2), 845-862.
- 35) SBS(2015.9.14.). [취재파일] 전업주부가 ‘맘충이’?…왜 이들이 욕을 먹어야 하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320&oid=096&aid=0000400257>
- 36) Umberson, D., Chen, M. D., House, J. S., Hopkins, H. & Slaten, E.(1996).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psychological well-being : Are Men and Women Really So Differ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5), 837-857.

- 투 고 일 : 2016년 5월 29일
- 심 사 일 : 2016년 7월 3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7월 29일